

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

■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

□ 일 시 : 2014. 3. 17(월) 10:00 ~ 11:00

□ 안 건

1.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인천도시관리계획(도로 : 대로1-24호선)변경 결정안
3.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춘역 출입구(1,2번) 이설공사 무상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(현물출자) 동의안

□ 장 소 :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

□ 참 석 : 3名(이도형, 정수영, 김병철 의원)

※ 참석공무원 :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등 30명

□ 부의안건

1.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⇒ 원안가결

○ 질의 및 답변

- 시도간의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데...타 시도는 효율이 어떠한지? (정수영 의원) 타 차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질의
⇒ 타 시도 효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, 그동안 리스차량 등록률 1위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왔으나 대구와 부산에서 효율을 낮춰 차량 등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. 매입효율을 인하할 경우 16억 세수 증대가 예상됨.(건설교통국장)
- 본 조례안의 취지는 동감하나, 근본적인 세수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? (정수영 의원)

2. 인천도시관리계획(도로 : 대로1-24호선)변경 결정안

⇒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함

○ 질의 및 답변

-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지장물이 늘어나고 사업비도 증가하게 되는데...(정수영 의원)
⇒ 군부대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되었음. (건설교통국장)
-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? (정수영 의원)
⇒ 4차선으로 축소할 경우 89억이 감소될 수는 있으나, 연계도로와 연결

및 장기적인 교통수요 예측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결정하였음.(건설교통국장)

- 인천시내 여러 도시계획 사업 시행 시 군부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텐데 항상 인천시가 약자의 입장에서 협의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? 개별 사업부서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, 정책제안 등을 통하여 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? (정수영 의원)

⇒ 전적으로 동감하며, 최대한 군부대의 협조를 끌어내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(건설교통국장)

3. 『인천도시철도1호선 동춘역 출입구(1,2번) 이설공사』 무상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(현물출자) 동의안

⇒ 원안가결

○ 질의 및 답변

- 없음.

일시	차수	심사안건	비고
-	-	-	-

보고자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